

지금까지 이런 남북 영화는 없었다

베일 벗은 새 영화 '강철비'

묵직한 메시지와 균형감있는 연출 정우성·곽도원 흡입을 데 없는 케미 남북 정치·외교·인권·이슈까지 담아

12월 한국영화 대전의 빛이 올랐다. '빅3'로 분류되는 3편 가운데 첫 주자 '강철비'가 개봉을 사흘 앞둔 11일 시사회로 그 베일을 벗었다. 일촉즉발 핵전쟁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2시간20분간의 긴박한 드라마가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로 완성됐다. 북한 핵문제와 전쟁을 향한 메시지, 균형감을 잃지 않은 힘 있는 연출, 흡입을 데 없는 배우들의 활약까지 3박자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시니저를 낸다.

'강철비'(제작 와이웍스엔터테인먼트)는 남한의 정권교체기,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핵무기로 공화국을 지키자'고 나선 쿠데타 세력의 선전포고로 남한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간다. 지금껏 남북한 소재 영화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정치·사회·외교는 물론 인권의 이슈까지 현실감 있게 그려낸 작품은 없었다. 사건을 포장하거나



영화 '한국영화 대전'의 문을 여는 '강철비'는 일촉즉발 핵전쟁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이야기를 다룬다. 정우성은 쿠데타 발생 직후 북한 1호와 남한으로 내려온 최정예 요원을 맡았다. 사진제공 | NEW

과장하지 않고 '정공법'을 택한 사실만으로 '강철비'는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연출을 맡은 양우석 감독은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핵전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으로, 그 문제에 몰입했다"며 "10년간 남북한 관련

자료를 착실하게 익혔고, 미국 CIA 출신 폭로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외교 자료로부터 도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으로 데뷔한 양우석 감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인간미 넘치는 시

선을 이번에도 유지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메시지도 우직하게 담아낸다. '강철비'가 극의 긴장을 높이는 배경은 정우성과 곽도원의 절묘한 호흡에 있다. 쿠데타 세력 암살 임무를 받은 북한 정예요원 정우성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곽도원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웃기면서도 슬프게' 그려낸다. 반목하던 둘이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 "뽀뽀하게"를 듣는 장면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꼽을 만하다. 1973년 동갑인 두 배우는 이번 영화를 통해 실제로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 정우성은 "동료와 신뢰, 교감을 주고받는 경험은 늘 짜릿하다"며 "도원 씨는 나를 참 사랑해주고 좋아해 준다. 서로 나누는 감정이 그대로 캐릭터로 연결돼 영화에 담겼다"고 만족해했다. '강철비'는 시사회 직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실 이슈와 뒤편 없는 소재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무거운 주제를 담은 데다 시종 묵직하게 진행되는 탓에 '빅3'에 속하는 판타지 '신과함께'와 시대극 '1987'과 비교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을 섭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gol1024@donga.com

숫자뉴스



2017년 극장 관객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극장 관객수가 10일 현재 2억69만여 명으로 2013년 이후 5년 연속 2억 명을 넘어섰다. 2012년 처음 1억 명을 돌파한 한국영화는 현재 9827만여 명, 한국영화의 6년 연속 1억 관객 돌파도 관심거리다.

#해시태그 킷



치과서 이양문 '키'

치과는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두려워 하는 곳이다. 사이니 멤버 키가 치아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 "치과가 싫다"고 투정을 부린다. 양다문 입술에선 입을 절대 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키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팬들은 그저 "귀엽다"는 댓글을 남긴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사이니 #키 #키덜트 #치과 싫어하는 어른

내마음에 작품하나

김무열 - 영화 '제리 맥과이어'



앞이 안보이던 젊은 날 나에게 희망을 준 영화

연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김무열도 과연 자신이 배우가 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안양예고생 졸업하고 연기예술학과(성균관대)에 진학해 '배우 코스'를 밟았지만, 대학생활 동안에도 앞날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기를 하고 싶지만 '왜' 해야 하는지도 섣뜻 떠오르지 않던 그때 본 영화가 '제리 맥과이어'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봤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무용 공연이나 어린이 공연에 오르면서 연기 경험을 쌓아가던 때였다. 말 그대로 절전공공하던 시기였다. 그 즈음 '제리 맥과이어'는 나에게 어떤 희망을 줬다.' 톱 크루즈가 주연해 1997년 국내 개봉한 '제리 맥과이어'는 능력을 인정받는 스포츠 에이전트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뒤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꿈을 다시 이뤄나가는 이야기다. 치열한 스포츠 에이전트 세계를 배경으로 각자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쿠바 구딩 주니어, 르네 쉴 워거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까지 더해져 개봉한 지 20년이 된 지금도 관객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은 작품이다. 김무열은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 "내가 연기를 하는 이유, 그 가치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20대가 되고, 공연에 오르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일에 대한 걱정만 하던 내가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 어떤 희망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지금 돌아보면 주인공 제리 맥과이어와 김무열은 조금 닮았다. 스크린에 데뷔하고 난 뒤 주목받았지만 그 인기가 승승장구로 이어지지 못했다. 의도치 않은 부침을 겪었고, 고비를 만났지만 착실하게 이겨낸 끝에 최근 주연 영화 '기억의 밤'으로 새로운 성공을 맛보고 있다. 이혜리 기자



시청률 41.2%...신혜선 눈물의 매직

KBS2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 그녀가 울 때마다 시청률 대박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이 10일 방송분에서 41.2%(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40% 드라마는 2015년 2월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이후 2년 만이다. '황금빛 내 인생' 시청률 40%의 견인차는 단연 주연 신혜선이다. 그가 펼쳐내는 아픔과 눈물의 연기가 더욱 힘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혜선은 10일 방송분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꿈을 위해 살고 있는 또래 젊은이들의 모습에 지난날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시절을 후회하며 '폭풍눈물'을 흘

렸다. 이 시대 청춘의 고달픈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많은 시청자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나락으로 떨어지며 삶의 위기에 놓인 듯했던 신혜선이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복선으로 향후 전개를 기대하게 했다. 신혜선은 앞서 10월29일 방송분에서 재벌가 딸이 아님이 밝혀진 뒤 박시후와 애뜻한 감정



신혜선

물따귀 백진희 알가닥 채수빈

백진희, 저글러스서 대글육 폭소탄 채수빈, 로봇이 아니야서 코믹 변신

연기자 백진희와 채수빈이 나란히 신작에서 망가지는 열연으로 인방극장의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백진희와 채수빈은 각각 KBS 2TV 월화드라마 '저글러스'와 MBC 수목드라마 '로봇이 아니야'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다. 몸 사리지 않는 열연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백진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굴욕 연기의 총집합이다. 다짜고짜 물 따귀를 맞고, 옷 띠까지 잡힌 채 밖으로 끌려 나가며, 머리채까지 붙잡히는 등 수난의 연속이다. 극중 비서 역할을 맡아 회사 내 불합리한 일 처리에 "무슨 그런 싹팔 세기, 쌍팔년도 개념을 탑재한 인간이 다 있냐" 등 거친 대사로 자연스럽게 소화한다. 백진희의 활약은 데뷔 초 그가 주목받은 2011년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의 코믹연기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단아한 이미지로 눈길을 끌었던 채수빈은 알가닥 매력으로 재미를 준다. 지난해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과 올해 MBC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에서 아련하고 청초한 여성미를 드러냈던 모습과 대비된다. 극중 채수빈은 인간과 로봇을 오고가는 1인2역으로 연기 폭을 넓힌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로봇일 때의 무표정과 뻣뻣한 동작은 그의 코믹연기에 힘을 더한다. 특히 6일 2회분에서 보여준 술 취한 연기는 그 코믹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새치기하는 상대에게 "개념도 없고 뇌도 없고 양심도 없는 시키야, 네 눈엔 여기 줄선 사람들이 개, 돼지로 보이냐?" 등의 거친 대사로 쏟아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그동안 대중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한 꺼풀 벗어내는 과감한 도전의 결실을 극 초반부터 얻고 있다. 이번 드라마를 앞두고 두 사람은 긴 머리카락을 나란히 단발로 자르는 변화를 주기도 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4만여 관객 열광...아이유 '환상의 피날레'

가수 아이유가 9·10일 이틀간의 서울공연으로 '2017 투어 콘서트-팔레트'를 마무리했다. 11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청주, 서울 등 국내 4개 도시와 홍콩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투어는 모두 4만여 관객을 동원했다.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 10일 서울공연에서 아이유는 두 번의 앙코르 등 5시간의 러닝타임을 기록했다. 지드래곤, 싸이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고,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공연장을 찾기도 했다. 투어를 마친 아이유는 tvN 새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에 돌입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진제공 | 에이브먼트엔터테인먼트

류현진 결혼식 사회는 '런닝맨' 유재석

런닝맨 출연이 맺어준 인연 류현진 부탁에 흔쾌히 OK!

역시 '의리의 사나이'다. 방송인 유재석이 내년 1월5일 결혼하는 류현진과 배지현 MBC스포츠플러스서 아나운서의 결혼식 사회를 맡는다. 11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류현진이 직접 유재석에게 결혼식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유재석은 평소 동생처럼 아꼈던 류현진의 요청에 흔쾌히 결혼식 사회를 맡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방송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았다. 류현진이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유재석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SBS '런닝맨'에 출연한 데 이어 이듬해 또 다시 출연해 친분을 과시했다.

유재석은 이후 MBC '무한도전' 등을 통해 류현진의 선발 경기가 있을 때 응원 영상을 보내는가하면 '런닝맨'에 함께 출연하는 하하, 개리 등과 미국 LA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다저 스타디움을 찾아가 직접 응원하기도 했다. 또 두 사람은 한 영어교재 광고에도 나란히 출연한 경험도 있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소개로 만나 2년간 교재해운 류현진과 배지현은 새달 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양가 가족과 친인척,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예식을 올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재석